

24년 8월 목회일정

18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노회를 위한 당회
23-25일	연합수련회(김해개혁장로교회) (창녕 온누리청소년 수련원)
3-11월	신앙고백반 교육
6일(화)	노회 임원회(샘터교회당)
7일(수)	신대원신입생유치위(거제교회당)
26일(월)	노회 장로고시(거제교회당)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피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3. 신앙고백반교육 / 입교반(김성재 이은수)
4. 성찬조별기도회 / 다음 주일 오후예배 후에 있습니다.
5. 노회를 위한 당회 / 다음 주일 모든 순서 후에 모이겠습니다.
6.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처음오신 분 / 백가림학생(초신자-고태은인도)
이호용 송유나성도(목사/이세움 이채움)-꿈이있는교회(합동)

[김해개혁장로교회&동래언약교회 연합수련회]
 • 일시 : 2024년 8월 23~25일(2박 3일)
 • 장소 : 창녕 온누리청소년수련원(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786)
 • 주제 : 가정 & 교회(강사 : 2교회 교역자)
 • 회비 : 장년-5만원 S.F.C-3만원 초등부-1만원
 (입금 : 농협 302-0781-3983-81 / 구성본)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도)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금요독서회	20:00(격주)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8월	9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김명순	이경준
안 내	최진언	김유니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개혁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 성 언 화 교 회 (최 지 혁)
장학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8.11.(제28-32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개 회

- * 예배에로의부름 ↑ 요4:23-24(교송)
인도자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회 중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 배 찬 송 ↑ 찬송 5장(1)
- * 십 계 명 봉 독 ↓ 출20장(전계명/봉독)
- * 죄 의 공 적 고 백 ↑ 제 2형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 사 찬 송 ↑ 찬송10장(7a-8)

죄의고백

- * 십 계 명 봉 독 ↓ 출20장(전계명/봉독)
- * 죄 의 공 적 고 백 ↑ 제 2형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 사 찬 송 ↑ 찬송10장(7a-8)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 경 봉 독 ↓ 고후11:1-3, 왕상18:16-24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05편(2-5)
- 설 교 ↓ 설교자

야웨와 바알 사이에서

-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 세 례 식 ↑ 필요시 시행
-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4장(1a-1b) 구제헌금 분병 분잔
-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봉사사역

-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찬송8장(6a-7,12-13)

폐 회

- * 강 복 선 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주간기도회	
교회소식		개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에스라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 예배에로의부름 ↑		시126:5-6(교송) 인도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회 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삶] 인도 : 최성림 목사	
* 축복의인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울산(화, 19:30)	
* 경배찬송 ↑		찬송가 4장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수, 19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 니케아신경			
* 감사찬송 ↑		찬송23장(3-4b)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엡 2:8-9, 고전1:18-25			
교리문답교독 ↓		하이델베르그65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19-2편			
설교 ↓		설교자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과 그 방법					
아멘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201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구신	
				59. 도망치는 다윗 60. 다윗을 찾아나선 사울 37.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주간성경읽기	
				주일	잠 8-9 눅22:39-71
				월	잠10-12 눅23:1-25
				화	잠13-15 눅23:26-56
				수	잠16-18 눅24:1-35
				목	잠19-21 눅24:36-53
				금	잠22-24 고전1:1-17
				토	잠25-26 고전1:18-21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아래와 바알 사이에서) 1.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신앙의 순결을 굳게 지키며 분명한 사랑을 고백하게 2. 음란한 세상의 원리와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을 떠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되게 3. 직분자들이 주의 신부된 교회를 신랑이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잘 선포할 수 있게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목사) 1. 인구감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요즘 더 깊이 복음을 전할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2.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수고하는 이방인들에게 외국인근로자선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3.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불교와 이슬람 힌두교권 국가인 만큼 성도들이 더욱 많은 관심가지게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1. 연합예배를 통해 신앙의 일치를 경험하고, 신앙이 일치되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2. 신앙의 일치를 통해 공교회를 세우는 삼위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3. 8월에 연합수련회 준비가 순적히 이루어져서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배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1. 매일을 주의 선편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영적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공예배를 준비하도록 2.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풍족히 받아누르게 3. 예배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될 수 있는가?(개혁정론 사설-수정)

이전 총회헌법(2011년판)은 아주 분명하게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36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다른 어떤 곳에도 “성경과 헌법정신”을 언급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금지하는 예는 없다. 고신 총회는 지금까지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고 그대로 실천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전반적으로 타락하는 상황 가운데 이 가르침은 한국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고신총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개정되어진 헌법은 정치제36조 2항에서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세울 수 없다. 단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해서 만6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총회 헌법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할 수 없다. 총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무효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의 근본적 차이다.

결국 이 법은 총회가 이해하는 성경과 헌법의 정신에 근거하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다. 명예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성경과 헌법정신 자체가 변하거나 더 높은 권위가 있다든지 (이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아니면 성경과 헌법정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 명예직이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한 세워서는 안되는 것이다. 성경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명예직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허용한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심지어 성경에 근거하여 변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리나 규율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 여성안수나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명예직이란 무엇인가? 주어진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자가 직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감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명예직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개념과 상치된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명예직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적 가르침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것인가? 결국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명예직 허용은 직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직분이나 권위 자체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명예직은 이와 같은 거부감을 보다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기존의 직분제도라도 제대로 헌법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고신 총회가 가야 할 길이다. 명예직이 도입된 교회 중에는 시무 직분자보다 명예 직분자들이 더 많은 예도 있다. 명예직 허용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될 것이다.

이어마하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신을 향한 ‘절대의존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감정이 신앙을 발생시키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분위기에 취해 신앙을 느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주의(主意主義)”입니다.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정했으니 그 의지로 인해 믿음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와 같은 것을 따라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쉽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이성, 감정, 의지의 작용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엡 2:8).

2. 믿음을 주시는 방법: 복음 강설과 성례

전도, 곧 “복음 강설”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입니다(고전 1:18, 23). 바울 사도가 전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예로 듭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인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율법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는 줄로 여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롬 10:17).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는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사역자가 오직 리스도의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성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믿음이 생기고 굳세게 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 역시도 설교에 집중해야 합니다(마 13:44-46). 설교를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가다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보좌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8월11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586장
성경봉독 왕상18:16-24, 고후11:1-3	
설 교	야웨와 바알 사이에서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부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침묵은 음행이다”

아합의 시대, 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좇음을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합이 좇고 있는 바알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1. “신부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합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부른 것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야웨의 신부입니다.(신7:6-8, 겔16장) 그러나 이들은 원래 애굽 땅 중의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아래서 울부짖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사 그들을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신7:6-8),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겔16:6-13) 이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혼인언약입니다.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혼인언약을 체결할 때 신부 이스라엘은 “야웨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출24:7)

그러나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부의 문제를 알고 이를 밝히기 위하여 신부를 꺾어낸 정부 바알과 함께 신부를 갈멜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판단의 장소로 갈멜산을 잡은 이유는 1) 그곳에 야웨의 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갈멜산은 원래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방입니다. 야웨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신랑이 기다리는 신방으로 나오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방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방을 막았습니다. 야웨의 말씀이 흘러나오던 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쌓을 뿐 아니라 갈멜산에 있는 야웨의 제단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2) 신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렘산(시내산)에서 이스라엘조상들과 혼인언약을 맺으셨듯이, 갈멜산으로 신부를 불러 내어 이전 혼인을 맺었던 그 때를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아7:5) 신부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던 이 갈멜산이 황폐하여 진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했습니다. 아합이 바알의 딸 이세벨과 바람이 나서 지낼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 이스라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아합의 뜻과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야웨와 바알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고 질문했

을 때 그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들이 아합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24) 그들은 엘리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웨가 아니라 바알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며, 더 원하는 것은 신부의 간음입니다.

2. "신부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침묵"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음탕한 창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신랑되신 야웨께서는 중계자 엘리야를 통하여 당신의 신부를 부르시고 다시 한 번 그 신부 이스라엘에게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지니라" 그러나 그때 신부가 입을 닫았습니다. 이 침묵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바알과 야웨 중 누가 더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22-24)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생각나는 갈멜산에 올라온 신부 이스라엘은 그 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창녀처럼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되신 야웨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음행의 행로에 제동을 걸었으며 누가 과연 합법적인 남편인지에 대해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언제까지 두 남자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행하겠느냐?" 그때 그 신부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 날 섬길 신을 택하라'고 촉구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야웨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수24:16-18) 그러나 아합의 때에 이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이 신부들이 이미 첫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갈멜산에서 창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굴욕스러운 침묵으로 서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를 자기의 '남편'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혼한 신부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온갖 선물과 장식구를 제공하는 남자에게 끌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은 "너희는 야웨와 바알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는 질문 앞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실로 말 못하는 짐승보다 더한 슬픔을 줍니다(사1: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침묵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자신들에는 치욕스러운 것이었고, 주님께는 모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은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결코 그의 영광을 다른 어떤 신들과도 공유하기를 허용치 않으십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야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혼합주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이는 두 주인을 섬기는 죄악입니다. 교회는 이제 정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단해야 합니다. 바알과 야웨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물쩍거리며 침묵으로 머뭇거리는 것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8월11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01장
성경봉독	엡 2:8-9, 고전 1:18-25
설 교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성령님은 복음 강설과 성례로 믿음을 주십니다."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고전12:3).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1.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은사주의에서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건 일부분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적용"이야말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리문답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일깨운다'고 하지 않고,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깨우는 것'은 원래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깨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일으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없었던 믿음을 새롭게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 정, 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믿음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은 이 세 가지 안에서 고유한 믿음의 좌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먼저, "주지주의(主知主義)"입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성경'이라 부르지 않고 '성서'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주의(主情主義)"입니다. 이 시작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술라